

이보다 더 힘날 순 없다!

수능 앞둔 수험생 응원 문구·선물 BEST 3



약 55만 명의 수험생들이 열흘이 채 남지 않은 결전의 날을 향해 달리고 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치러진다.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예민한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만 자칫 부담스러운 말로 압박감을
더하거나 영혼 없는(?) 격려로 실망을 줄까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오랜 시간 힘들게 달려온 수험생들이 든든한 기분을 느끼고 긴장을
풀 수 있게 할 응원 문구와 추천 선물을 모아봤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rni@naeil.com



마음 전하는
합격 기원 응원 메시지

#웃음 가득 코믹형

수험생을 위한 기도

수능에 임하는 우리 ㅇㅇ이(가)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하소서
하나를 풀면 열이 풀리고
찍는 족족 정답이게 하시되 시간은 충분하게 하소서
착하게는 살아온 아이니 정상참작해주소서

수능대박

#짧고 굵은 감동형

“삶은 계속되고 아직 꿈꿀 시간은 많다.
후회 없이 실력 발휘하길.”

“토닥토닥~ 힘내!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아깝지 않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도할게.
힘내자 팍팍!”

“해내면 잘해줘서 고맙고, 못해내도 애써줘서 고마워.
늘 너를 응원하는 ㅇㅇ이(가) 있음을 잊지 마.”

#간단 명료 단답형

“찰떡처럼 찰싹 붙어라!”

“꿈은 이루어진다. 자신을 믿어라!”

“너도 2호선 탈 수 있다. 파이팅!”

“그까짓 거 별거 아냐.
아는 건 잘 풀고 모르는 건
잘 찍어!”

TIP

문구만 전달하기 쉽습니다

합격 기원 선물 BEST 3



열공스킨

아로메퍼시픽

일명 ‘뿌리기만 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미스트’. 막판 집중력이 필요한 지금, 선물하기 좋다. 제품 상자에 응원 메시지도 적을 수 있으니 금상첨화. 찬물로 세안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쿨 샷 이펙터(Cool-Shot Effector™)’ 성분이 함유돼 있다. 동물성 원료, 인공향, 실리콘오일 등 8가지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저자극 제품으로 수험생의 ‘고운 피부’결을 지켜준다.



포스트잇·스카치 수능팩 6종

한국쓰리엠

파스텔 색상의 포스트잇 노트 4패드, 플래그 1패드 등 포스트잇 제품에 아이스크림과 마카롱을 모티브로 한 감썹한 디자인으로 ‘착붙어바’ ‘시험잘바’ 등 재치 있는 합격 기원 문구를 넣었다. 스카치 매직 테이프와 마카롱 테이프 디스펜서로 구성된 스카치 기획 상품에도 ‘긴장마롱’ ‘걱정마롱’ ‘붙었자롱’ ‘재수마롱’ 등 개성 있는 격려의 메시지를 담았다.



불낙(不落)죽

본죽

소불고기로 부드러운 감칠맛을 살리면서, 대표 보양식 낙지로 영양도 챙겼다. 특히 본죽의 ‘불낙죽’은 제품명에 ‘아니 불(不)’, ‘떨어질 낙(落)’을 사용해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둔 이들을 위한 선물로 인기가. 수능을 앞두고 쌀쌀한 날씨와 긴장감 탓에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수험생에게 안정맞춤이다.

시험 보기 전, 알고 들어가자

수능 시험장 주의사항 4

수능 보러 가기 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모아보자.
미리 준비해야 할 물건,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물건은 무엇인지,
가지고 간 소지품은 어떻게 보관하는지 등등 생애 처음 보는 큰 시험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많다. 빠짐없이 잘 준비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에 임하여
올해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 대박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

취재 손희승 리포터 sonhi1970@naeil.com 자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작년 선배들이 본 곳과 다른 시험장으로 갈 수 있어요.”

어느 시험장에서 수능을 보게 될지는 수능 전날 배부하는 수험표를 받아야 알 수 있다. 시험장은 남학생과 여학생, 탐구와 제2외국어 등 선택 과목에 따라 매년 달라지니, 수험표를 받아야 알 수 있다. 수능 전날 시험장 건물은 개방하지 않으니 시험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화장실 위치는 수능 당일 아침에 확인할 것.

“시험장은 따뜻해요. 얇은 옷 여러 겹 준비하세요.”

수능 시험장은 아침부터 난방을 해서 평상시 교실보다 따뜻한 편이다. 수능 날 춥다고 두꺼운 옷을 입었다가 더우면 땀 났고 벗기 편한 옷 여러 겹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하루 종일 앉아서 시험을 봐야 하니 평소 입던 편안한 옷을 입을 것.

“가방은 교실 앞에 모아두어요.”

겉옷을 포함해 가방과 도시락 등 모든 소지품은 교실 앞에 내놓는다. 쉬는 시간에 보던 노트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채로 시험에 응시하면 부정행위로 전 과목 0점 처리된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 시험장에 갖고 가지 말 것. 혹시 갖고 왔다면 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험 시간 중 가방에서 진동음이 들려서, 혹은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SNS를 사용한 기록이 확인되어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수능 샤프는 나눠준 것으로 쓰고 샤프심을 준비하세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검은색 사인펜은 시험장에서 나눠준다. 수험생이 준비해야 할 것은 0.5mm 샤프심,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다.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이나 연습장 등은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가방에 넣을 것 ㉔

